



나라사랑 역사의 길

제7편_6·25전쟁의 전환점, 인천상륙작전의 현장을 가다

‘나라사랑 역사의 길’은 독립기념관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기록물이다. 이 길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사적지를 중심으로 현충시설, 전근대 역사유적, 경관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역사의 길로, 우리나라 989개의 독립운동시설과 1,322개의 국가수호시설 등 총 2,311개의 현충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탐방 코스를 제공한다.

도로교통 저널에서는 독립운동과 6·25전쟁의 국가수호 사적지를 알리고, ‘나라사랑 역사의 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 연재를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6·25전쟁의 전환점인 인천상륙작전의 현장을 탐방한다. 특별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자유공원’을 방문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해보자.

📍 탐방로 안내

이번 여정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작전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시선이 머물렀을 자유공원에 올라보고, 치열한 상륙 현장이었던 적색해안과 녹색해안의 표지석을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수도권 해상 방어의 심장부인 옛 해군 인천기지 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작전 성공의 숨은 주역을 기리는 해군첩보부대 충혼탑을 참배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보자.



📍 탐방로 안내

1 평화의 댐

2 자유공원

3 적색해안 미해병대 상륙지

지역
인천광역시 일대

총 소요시간
약 45분

6 월미도(녹색해안)
미해병대 상륙지

5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4 옛 해군 인천기지

📖 코스 개요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줄곧 한국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다른 항구도시들과 달리 인천은 서울로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는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입증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사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군과 UN군은 월미도의 그린비치·레드비치·블루비치에 상륙전을 감행하여 전세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낙동강 전선에서 악전고투하던 국군과 UN군에게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다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은 개항기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중국의 상권과도 연결된 상업적 항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일제는 이점에 주목하여 인천에 각종 수탈기관을 설치하였다.

이번 코스에서는 월미도-녹색해안 상륙지, 월미도-적색해안 상륙지, 인천역 전투지, 자유공원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한다.



코스 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작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다. 야외에 전시된 상륙주정과 전차, 그리고 작전 전개 과정을 담은 내부 전시물들은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과 그날의 치열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인천 연수구 청량로 138

코스 ②

자유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정상에 서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으로 유명하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작전을 승리로 이끈 지휘관의 결단을 기리는 동상 앞에서 인천항을 내려다보며, 70여 년 전 포화 속에서 희망을 길어 올렸던 그 날의 함성을 떠올려보자.

📍 인천 중구 제물량로232번길 46



코스 ③

적색해안 미해병대 상륙지

월미도 점령 이후 본토 상륙의 교두보였던 이곳은 치열한 시가전의 시작점이었다. 지금은 공장과 부두가 가득한 산업지대로 변했지만, 그 자리에 선 작은 표지석 하나가 이곳이 자유를 향한 격전지였음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다.

📍 인천 중구 북성동1가 6-176



코스 ④

옛 해군 인천기지 터

현재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주둔한 이곳은 광복 직후부터 대한민국의 해상 관문을 지켜온 핵심 기지이다. 상륙작전 당시 후속 부대와 군수물자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이다.

📍 인천 옹진군 대청도 선진항 인근

코스 ⑤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월미공원 한쪽에 자리한 이 충혼탑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숨은 영웅들을 기리는 공간이다. 작전 전, 적진에 침투해 결정적인 정보를 수집했던 해군 첩보부대원들의 숭고한 헌신이 없었다면 '크로마이트 작전'의 성공은 불가능했을지도...

📍 인천 중구 월미로 131-22



코스 ⑥

월미도(녹색해안) 미해병대 상륙지

1950년 9월 15일 새벽, 작전의 첫 총성이 울리고 미해병대가 최초로 상륙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월미도에 있던 북한군 해안포를 무력화하고 본토 상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던 곳으로, 승리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곳이다. 🇺🇸

📍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30



*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주신 독립기념관, 인천광역시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